

# 국어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의 변화

-‘한글 맞춤법’류 및 ‘학교 문법서’류를 중심으로-

유경민(전주대학교)

## 차 례

- I. 서론
- II. 통일안(1933) 이전 문법서에 나타난 국어 용언의 활용 체계에 대한 인식
- III. 통일안(1933) 이후 학교 문법에서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 1. 최현배(1934)의 『중등 조선말본』
  - 2. 교육과정기 이후의 학교 문법서
- IV. ‘한글 맞춤법’에서의 불규칙 활용의 기술 내용의 변화
  - 1. 1933년판~1958년판의 불규칙 활용 기술
  - 2. 1980년판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
  - 3. 1988년 <한글 맞춤법>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
- V. 한글 맞춤법과 학교 문법서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의 이동(異同)
  - 과 그 문제점
  - 1. 시기별 고찰
  - 2. 양자의 기술상 차이와 그 보완 방향 모색의 필요성
  - 3. 한글 맞춤법 및 문법 교과서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 VI. ‘불규칙 활용’ 교육을 통한 국어 지식 교육의 가능성 모색
- VII. 결론

## I. 서론

현대 한국어 맞춤법은 1933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朝鮮語 綴字

法 統一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sup>1)</sup>은 현대국어 맞춤법의 확립뿐 아니라, 국어 문법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획기적 업적이기도 하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그 이전까지의 국어 문법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어 용언류의 활용에 대한 체계적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국어 문법 연구사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안(1933)’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국어 문법서에서의 용언의 활용 체계에 대한 기술은 ‘국어 활용 체계의 이해도’라는 측면에서 통일안(1933)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고, 문법 교육 내용도 통일안(1933)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안(1933)의 내용과 국어 문법 연구, 나아가 문법 교육의 상관성을 검토한 연구는 보기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불규칙 활용에 대한 ① 한글 맞춤법 규정의 내용 변화와 학교 문법서류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의 변화를 정리하여, 이들 두 부류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② 한글 맞춤법 규정과 학교 문법서의 기술 내용상의 차이를 ‘국어 교육 내용의 확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장에서는 우선 통일안(1933)이 나오기 이전의 국어 문법서에 나타난 국어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에서 ‘불규칙 활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정리한다. 이는 통일안(1933)이 지니는 국어 문법 연구사적 의의를 확인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3장에서는 통일안(1933) 이후에 간행된 국어 문법서의 용언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에서 ‘불규칙 활용’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정리한다. 우선 3.1.에서 고영근(2000, p. 29)에서 통일안(1933)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평가한 최현배(1934)의 내용을 정리하고, 3.2.에서 교육과정기 이후의 문법 교재류들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 내용을 살펴본다. 4장에서

---

1) 이후로 본고에서는 ‘통일안(1933)’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는 통일안(1933) 및 그 이후의 ‘한글 맞춤법’의 기술 내용 중 불규칙 활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종합하고 ‘한글 맞춤법류’와 ‘학교 문법서류’에서 기술의 차이가 나타난 배경을 살피는 한편 양자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정리한다. 6장에서는 학교 문법 영역에서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교육이 단순히 공식적인 활용 체계에 대한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 관한 지식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는 최근의 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구에서의 문법 연구와 교육’과 ‘한국에서의 학교 문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문법 교육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이다.

## II. 통일안(1933) 이전 문법서에 나타난 국어 용언의 활용 체계에 대한 인식

김민수·하동호·고영근(편)(1986)을 참조하면, 통일안(1933)이 나오기 이전의 국어 문법 연구(서)는 44종에 달한다.<sup>2)</sup> 그런데 이들 중에서 용언의 활용을 다룬 것은 극히 드물다. ‘동사의 변화’와 같은 제목으로 활용을 다룬 경우에도 파생과 구분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국어 문법의 기술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김두봉(1916, 1922)에서조차 활용과 파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김두봉(1922, p. 67)에서는 ‘움의 바꿈(동사의 변화)’이라는 절에서 “움도 그 쓰이는 바를 딸아 뜻이나 또는 몸의 바꾸이는 일이 있나니 뜻바꿈은 제물은 바꾸이지 아니하고 다만 뜻만 바꾸이는 것이요, 몸바꿈은 임씨나 열씨로 바꾸이는 것이니라”라고 기술한 후에, ‘제움이

2) 실제로는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김민수·하동호·고영근(편)(1986)의 내용을 수용하고, 이에 기대어 논의한다.

남움으로 바꾸임’, ‘남움이 제움으로 바꾸임’, ‘움씨의 자리를 높임’, ‘움씨의 때를 말함’을 모두 ‘바꾸인 보기들’에서 설명하고 있다. 시제와 경어법을 나타내는 “활용”과 ‘이, 히 리 기’ 등에 의한 “파생”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통일안(1933) 이전의 문법서 중에서 활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안확의 『수정 조선문법(1923)』이다. 이에 대해서 김민수의 해제에서는 일본의 大槻文法과 이를 참조한 高橋亨의 『韓語文典』 등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第七章 動詞’ ‘二節 動詞의 變化’에서 ‘動詞의 變法’을 어말음의 교체에 따라 ‘原格, 曲原格, 支格, 曲支格, 變格’의 다섯 종류로 나누고, ‘變格’ 항에서 ‘하(爲), 돕(助), 얻(得), 깃(縫), 고르(擇), 읊(詠), 들(入), 낄(起), 낫(連), 깔(鋪), 빌(借)’로, 11개의 불규칙 용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第八章 形容詞’에서도 동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변법을 ‘原格, 曲原格, 支格, 曲支格, 變格’으로 나누고, ‘變格’ 항에서 ‘모질(惡), 기울(傾), 드물(稀), 곱(美), 가렵(癢), 무섭(恐), 쉽(易), 해롭(害)’으로, 8개 예를 들고 있다. 동사의 경우에는 ‘하 불규칙, ㅅ 불규칙, ㅂ 불규칙, ㄴ 불규칙, ㄹ 불규칙’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형용사에서는 ‘ㄴ 불규칙, ㅂ 불규칙’ 두 유형의 예만 들고 있다. 이러한 안확(1923)의 기술은 통일안(1933) 이전의 문법서 중에서 불규칙 활용 용언을 제시한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sup>3)</sup>. 활용과 파생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던 이 시기의 문법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어의 활용 체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原格, 曲原格, 支格, 曲支格’ 등의 기술 내용을 보면 일본어 문법의 영향이 크고, 정확히 국어 용언의 활용체계에 대한 인식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이 중에서 ‘얻(得), 읊(詠)’은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예로 보이지만, 나머지 9개의 용언은 모두 불규칙 활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Ⅲ. 통일안(1933) 이후 학교 문법에서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 1. 최현배(1934)의 『중등 조선말본』

최현배(1934)는 일러두기에서 “이 책은 中等學校의 朝鮮語科 教授의 補用이 되며, 또 一般으로 朝鮮語 研究에 뜻하는 이에게 그 基礎的 知識을 대어 주는 동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 『중등 조선말본』은 한편으로는 국어 문법 연구의 기초 지식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법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집필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벗어난 끝바꿈 움측씨 또는 벗어난 움측씨’라는 항과 ‘벗어난 끝바꿈 어떻게 또는 벗어난 어떻게’라는 부문에서 불규칙 활용을 다루고 있다. 그 항목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벗어난 끝바꿈 움측씨(최현배, 1934/2008, pp. 53-62)

- ① ㄹ 벗어난 움측씨
- ② ㅅ 벗어난 움측씨
- ③ 으 벗어난 움측씨
- ④ ㄷ 벗어난 움측씨
- ⑤ ㅂ 벗어난 움측씨
- ⑥ 여 벗어난 움측씨
- ⑦ 러 벗어난 움측씨
- ⑧ 거라 벗어난 움측씨
- ⑨ 너라 벗어난 움측씨
- ⑩ 르 벗어난 움측씨

㉒ 벗어난 끝바꿈 어떻게

- ① ㄹ 벗어난 어떻게
- ② ㅅ 벗어난 어떻게
- ③ 으 벗어난 어떻게
- ④ ㅂ 벗어난 어떻게
- ⑤ 여 벗어난 어떻게
- ⑥ ㄹ 벗어난 어떻게
- ⑦ ㄹ 벗어난 어떻게
- ⑧ ㅎ 벗어난 어떻게

불규칙 형용사에 대한 기술에서 ①~⑦은 동사와 같고, ⑧의 ‘ㅎ 벗어난 어떻게’가 형용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최현배(1934)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통일안(1933)의 第三章 第四節 ‘變格 用言’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인데,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 살핀 것과 통일안(1933)에 없는 ‘㉑-③, ㉑-⑧, ㉑-⑨, ㉒-③’을 추가한 것, 그리고 불규칙 용언의 배열 순서가 통일안(1933)의 내용과 다르다.

## 2. 교육과정기 이후의 학교 문법서

통일안(1933)은 표음주의를 주장하던 ‘정음파(박승빈 등)’와의 대립 끝에 형태주의(기본형과 어원을 살피 표기하는 입장)를 주장한 ‘한글파(주시경 등)’의 입장이 관철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한글 맞춤법(1988.1.)에서도 그 형태주의의 명맥을 이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언어 운용에 있어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게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어미가 변화할 때 어간은 달라지지 않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불규칙 용언은 활용시에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로 제18

항에서 정리하고 있다.

학교 문법서에 반영된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교육 내용은 ‘기본 형태가 달라진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이 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1차 교육과정 시기(1955.8.)에서부터 2007년의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국어』와 『문법』 교과서, 2009년 개정 이후의 『독서와 문법』<sup>4)</sup>, 2015 개정에 의한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다루는 불규칙 활용의 양상을 정리한다.

## 2.1. 1차 교육과정기(1955.8.~1963.1.)

1차 교육과정기에 문교부의 ‘인정필’로 출판된 중·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는 총 8종 20책인데(문교부, 1962, pp. 5-6) 여기서는 『새고교문법』(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 1960)의 불규칙 활용 기술 내용을 정리한다.<sup>5)</sup> 『새고교문법』은 『새중학문법』과 함께 개인의 학설이나 주장을 떠나 종합적인 문법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작된 것이었기에 이것을 이 시기의 문법 교

---

4) 4차 교육과정기까지 ‘국어 I’, ‘국어 II’로 운영되던 교과목이 5차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국어과’의 내부 영역으로 ‘국어, 문학, 작문, 문법’으로 바뀐다. 6차 교육과정기에는 공통 필수 과목으로 ‘국어’를, 과정별 (필수) 선택 과목으로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설정되었다(<http://ncic.go.kr>). 7차 교육과정기부터는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별도의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문법’이 필수 과목이 아닌 심화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고, 이 체계가 2007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 개정에서 ‘국어’과의 내부 영역으로 ‘화법과 작문 I,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 문학 II’이 설정됨으로써 ‘문법’이라는 단독 교과목이 없어졌다. 2011년 8월에는 ‘국어’과의 내부 영역을 ‘국어 I(내용 체계: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국어 II(내용 체계: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으로 개정하였으며, 2012년 12월 개정에서는 ‘국어’과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국어 I(내용 체계: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국어 II(내용 체계: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을 두어 ‘국어’ 과목과 관련하여 ‘문법’ 영역의 교육 과정 및 내용을 더욱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부록에 제시된 어문규정을 활용하여 문법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5) 지면 관계상 각 시기별로 간행된 문법 교과서를 일일이 다루지는 못한다. 그 대신 각 교재에 반영된 불규칙 용언의 처리 양상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붙인다.

재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 책에서도 안확(1923), 최현배(1934)에서와 같이 불규칙 용언을 불규칙 동사와 불규칙 형용사의 두 부류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김민수 외, 1960/2008, pp. 77-86).

불규칙 동사로는 ① ㅂ 불규칙 동사 ② ㅅ 불규칙 동사 ③ ㄷ 불규칙 동사 ④ ㄸ 불규칙 동사 ⑤ ㄹ 불규칙 동사 ⑥ ㅁ 불규칙 동사 ⑦ ㄴ 불규칙 동사 ⑧ ㄹ 불규칙 동사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불규칙 형용사로는 ① ㅂ 불규칙 형용사 ② ㅅ 불규칙 형용사 ③ ㄷ 불규칙 형용사 ④ ㄹ 불규칙 형용사 ⑤ ㅁ 불규칙 형용사 ⑥ ㅎ 불규칙 형용사 ⑦ ㄴ 불규칙 형용사 ⑧ ㄹ 불규칙 형용사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최현배(1934)의 ⑧ 거라 벗어난 움죽씨 ⑨ 너라 벗어난 움죽씨를 불규칙 활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다르고 여타의 경우는 최현배(1934)와 같다.

## 2.2. 2차 교육과정기(1963.2.~1973.2.)

2차 교육과정기에 ‘인정필’ 교과서류로 출판된 것은 총 31종인데(중학 문법(16종), 고등 문법(13종)과 해설서(2종) 포함), 이 중 26종에서 불규칙 용언을 다루고, 14종의 교과서에서 12종의 모든 불규칙 용언을 기술하고 있다. 남광우·유창돈·이용백(1966)과 양주동·유목상(1966)과 이용주·구인환(1967)에서는 ‘으, 우, 거라, 너라’를, 김민수·이기문(1967/1968)과 이희승(1968), 김민수·이기문(1968)에서는 ‘우, 거라, 너라’를, 문덕수·김윤식(1967)에서는 ‘거라, 너라’를, 이송녕(1967)에서는 ‘여, 러, 거라, 너라’를, 이은정·한인석(1967)에서는 ‘으, 거라, 너라, 르’를, 최현배(1967)에서는 ‘ㅅ, 으, 우, 여, 거라, 너라’를, 정인승(1967)에서는 ‘으, 우, 러, 거라, 너라’를, 이을환(1968)에서는 ‘르’를 불규칙 용언 기술에서 제외하였다.



## 2.3. 3차 교육과정기(1973.2.~1981.12.)

3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서는 이전의 문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1979년에 5종으로 제한된 『고등학교 문법』이 출판되면서 중등 문법과 고등 문법의 구분을 없앴다. 즉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문법 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유지하고,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문법 교과는 폐지하였다. 김완진·이병근(1979), 김민수(1979), 이길록·이철수(1979), 허웅(1979), 이응백·안병희(1979)에 의한 교과서들 중 이 장에서는 허웅(1979) 『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허웅(1979)은 중등 문법과 고등 문법의 구분을 없애고 고등 문법만을 검인정하는 체제에서<sup>6)</sup> 집필된 5종의 검인정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서 중 하나로 이후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정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어간이 불규칙한 것을 ‘소리가 줄어진 것(ㄱ 불규칙 활용<sup>7)</sup>, ㄴ 불규칙 활용<sup>8)</sup>, ㄷ 불규칙 활용<sup>9)</sup>, ㄹ 불규칙 활용<sup>10)</sup>, 우 불규칙 활용(푸다)’과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ㄷ 불규칙 활용<sup>11)</sup>, ㄴ 불규칙 활용<sup>12)</sup>)’과 ‘소리가 줄고 바뀌는 것(ㄹ 불규칙 활용<sup>13)</sup>)’과 ‘어미가 불규칙한

6) 1963년에 제정된 학교 문법 통일안에 따른 결과이다.

7) 어미 따위의 첫소리가 ‘ㄴ, ㄷ, ㄴ, ㄹ’인 경우에 어간의 끝소리 ‘ㄱ’이 줄어드는 예로, ‘올다, 날다, 알다, 불다, 갈다, 팔다’ 등의 동사와 ‘가늘다, 길다, 멀다, 잘다, 질다’ 등의 형용사가 이에 속한다.

8) 어간의 끝소리 ㄴ이 밑에 홀소리로 시작되는 어미 따위가 연결될 때 줄어드는 예로, ‘있다, 낫다, 짓다, 굶다, 낫다, 짓다’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9) 어간의 끝소리 ‘ㅎ’은 닿소리로 끝나는 어간 밑에 들어가는 조음소 ‘ㅇ’ 위에서 줄어지며 동시에 ‘ㅇ’도 필요 없게 된다. 이것이 ㄴ 불규칙 활용과 다른 점이다. 접속어미 ‘-어/아(서, 도)’가 연결될 때도 ‘ㅎ’이 줄어지나 그 때는 어간과 어미가 융합해서 ‘하에, 거매’와 같이 변하는 현상으로, ‘가맣다, 말짱다, 노랑다, 파랗다, 높다랗다’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10) ‘-ㄹ’은 어미 따위의 첫소리 ‘어’에 접촉되면 줄어진다. ‘끄다, 트다, 치르다, 담그다, 쓰다, 아프다, 나쁘다, 미쁘다’ 등이 이에 속한다.

11) 어간 끝 ‘ㄷ’은 홀소리 위에서 ‘ㄱ’로 바뀌는 예로 ‘견다, 긴다, 듣다, 묻다, 신다’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12) 어간 끝소리 ‘ㄴ’이 홀소리와 접촉할 때 ‘ㅇ/우’로 바뀌는 예로 ‘굽다, 집다, 무겁다, 그림

것(여 불규칙 활용, 러 불규칙 활용<sup>14)</sup>, 거라 불규칙 활용<sup>15)</sup>, 너라 불규칙 활용<sup>16)</sup>)으로, 12가지의 불규칙 활용을 설명하였다.

## 2.4. 4·5차 교육과정기

4차 교육과정 시기(1981.12.~1988.2.)와 5차 교육과정 시기(1988.3.~1992.5.)에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여 1985년 처음으로 국정 통일 교과서 『고등학교 문법』(대한교과서주식회사)이 만들어졌다.

강신항·고영근·김영희·남기심·이기동·이기문·이용주가 문교부에 제출한 ‘學校文法 體系 統一을 위한 研究’(1982.12.)라는 보고서가 먼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문법(검토본)』(1984.5.)이 만들어졌으며, 이 심의본을 거쳐 제1차 고등학교 단일 문법 교과서(1985.3.)와 교사용 지도서(1985.3.)가 만들어진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설명되었던 불규칙 활용 목록 중에서 ‘우’ 불규칙 활용이, 심의본에서는 ‘우, 러’ 불규칙 활용이 빠져 있다.

---

다, 아름답다’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 13) 어간 끝소리 ‘ㄹ’은 ‘어’와 접촉되면 줄어지는데, ‘ㄹ 불규칙’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르’의 ‘ㄹ’이 ‘ㄹㄹ’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르다, 나르다, 마르다, 자르다, 오르다, 그르다, 고르다, 부르다, 빠르다, 이르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허웅(1979)에서는 ‘르 불규칙’을 ‘ㄹ 불규칙’과 ‘러 불규칙’을 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 14) ‘르’가 ‘러’로 바뀌는 것으로, ‘이르다, 푸르다, 누르다’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 15) 종지법의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가다, 자다’에 연결될 때 ‘-거라’로 바뀌는 것으로 ‘나가다, 돌아가다, 물러가다’ 등이 이에 속하는 예인데, 최근에는 ‘알거라’와 같이 ‘거라’ 불규칙이 많이 쓰여 현대 문법서류에서는 ‘거라’ 불규칙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 16) 종지법의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오다’에 연결될 때 ‘-너라’로 바뀌는 현상인데, ‘오다, 나오다, 돌아오다, 들어오다’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오너라’ 대신 ‘와라’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 2.5. 6·7차 교육과정기

6차 교육과정기(1992.6.~1997.11.)와 7차 교육과정기(1997.12.~2007)에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주관으로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고등학교 문법』(2002)이 국정 교과서로 출판되었다. ‘ㄷ, ㅂ, ㅅ, ㄹ, ㄱ, ㄴ, ㅎ’으로 7종만을 불규칙으로 다루었다.

## 2.6. 2007, 2009 개정 시기

2007년의 교육 과정 개정 이후,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다시 검정제가 되었고, 교과서에 문법 항목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 간략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법 교육이 약화되었다. 최근의 문법 교육과 관련된 교과서로는 2013년 검인정된 ‘국어’ 교과서 11종(교학사, 지학사, 천재교육2, 미래엔, 창비, 좋은책신사고, 비상교육2, 해냄에듀, 두산동아), ‘독서와 문법’ 교과서 6종(교학사, 지학사, 천재교육, 미래엔, 창비, 비상교육)이 있다. 그러나 국어 관련 심화 선택 과목 중에서 ‘문법’ 관련 과목의 단위 수가 낮아지고, 대학 입시에서 문법 내용의 출제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문법 교육은 더욱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문법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 내용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교문법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 내용의 변화

교과서 종류	교육과 정 차수	어간만 변함						어미만 변함				모두 변함		종수
		ㄷ	ㄹ	ㅂ	ㅅ	ㅇ	ㅁ	여	러	거라	너라	ㅎ	르	
검인정	1차	○	○	○	○		○	○	○			○	○	9종
	2차	○	○	○	○			○	○			○	○	8종
	3차	○	○	○	○	○	○	○	○	○	○	○	○	12종
국정	4/5차	○		○	○	○		○	○	○	○	○	○	10종
	6/7차	○		○	○				○	○	○	○		7종
검인정	2013 <sup>7)</sup>	○		○				○	○			○	○	6종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문법에서는 교과서의 집필진의 관점에 따라 불규칙 용언의 종류를 6종~12종까지 제각각 설명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까지는 불규칙 혹은 변칙 활용이 학자들의 치열한 논의 속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2007년 개정기와 2009년 개정기, 그리고 2013년 새 교과서 출판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전체 교과목 대비 문법의 단위 수는 줄고, 문법 내용의 기술은 간략화 되었다. <표 1>에서 2013은 최근에 출판된 검인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주)미래엔, 2013, p. 87)의 ‘더 알아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규칙 활용의 내용인데, ‘ㄷ, ㅂ, ㄹ, 여, 러, ㅎ’으로, 6종의 불규칙 활용만을 다루며 역대 교과서 중에 가장 적은 수의 불규칙 용언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규칙 용언에 대한 설명이나 그 종류의 제시가 임의적으로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07년 개정시기에는 ‘국어’와 ‘문법’과 ‘매체언어’가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각각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 국어과 교육과정은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으로 설정되면서 ‘문법’에 관한 목표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2015년 9월에 개정된 고등학교 및 초·중등학교의 국어과의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은데, 문법을 가르치도록 명시된 영역은 ‘국어, 언어와 매체, 실용국어’로 나뉘어 있으나 독립된 교과목으로서의 ‘문법’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17) 2009 개정시기의 교육과정은 2013년에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는데, 국어과는 2009년(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문학Ⅰ, 문학Ⅱ), 2011년(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2012년(공통 교육과정: 국어, 선택 교육과정: 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에 세부적으로 수정되었다. 2013년으로 표시한 것은 2013년에 출판된 새 교과서를 살폈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개정 시기에 국어과는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로 편성되었고, ‘문법’이라는 교과명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9 개정시기의 교과서까지만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표 2> 2015년 개정된 국어과의 세부 영역

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b>문법</b> , 문학의 하위 분야로 구분
화법과 작문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독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독서 능력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언어와 매체	국어의 탐구와 활용이라는 영역을 두어 ‘음운, 품사, 단어, 의미 관계, 문장, 담화, 시대별, 갈래별 국어 자료, 국어의 규범’ 등의 내용 구성 국어 <b>문법</b> 과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어와 매체 언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문학	문학 작품의 수용 및 생산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실용 국어	맥락에 맞는 어휘와 <b>어법</b> 에 맞는 문장 작성, 직장 내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심화 국어	학문 분야에서 필요한 고급 수준의 국어 사용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함.
고전 읽기	통합적 국어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함.

#### IV. ‘한글 맞춤법’에서의 불규칙 활용의 기술 내용의 변화

‘한글 맞춤법’은 통일안(1933)이후 1988년 정식 어문규범으로 공포되기까지 1937년 일부 개정판, 1948년 한글판<sup>18)</sup>, 1958년 용어 수정판<sup>19)</sup> 1980년 한글학회 주관 개정판<sup>20)</sup> 등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cf. 한글학회, 1989). 그러나 1933년판부터 1958년판까지의 4가지 ‘한글 맞춤법’에서는 장과 절의 배분이 달라지고, ‘변격 용언’(1933년판, 1937년판)을 ‘변칙용언’(1948년판) 혹은

18) 한글판이라는 명칭은 1933년, 1937년 판이 모두 국한혼용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글 전용으로 바꾸고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을 가리킨다. 이 판에서 ‘불규칙 활용’을 가리키는 용어가 ‘변격 용언’에서 ‘변칙 용언’으로 바뀌었다.

19) 1958년의 용어 수정판에서는 본문 기술에 사용된 문법 용어를 순한글 용어로 바꾼 것이다. 예를 들어 ‘불규칙 활용’을 가리키는 용어 ‘변칙 용언’을 ‘벗어난 풀이씨’로 바꾸고, 종래의 한자어 용어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20) 한글학회 주관 개정판에서는 전면적으로 체재를 바꾼 것이다. 즉 1933년판~1958년 용어 수정판까지는 불규칙 활용에 대한 부분이 ‘제3장 문법에 관한 것’의 ‘제4절 변칙 용언’ ‘제10항’에 8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했던 것을 1980년판에서는 ‘제3장 말본’의 ‘제2절 풀이씨의 끝바꿈’으로 묶고, 제20항에서 기술하고 있다.

‘벗어난 풀이씨’(1958년판)로 바꾸었을 뿐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기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1980년판에 이르러서다. 또 1980년판에서의 수정 내용은 기술 방식은 다르지만 1988년 어문규범으로 공포된 <한글 맞춤법>에 부분적으로 반영된다. 이를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한글 맞춤법’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 내용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1. 1933년판~1958년판의 불규칙 활용 기술

이 시기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8가지의 불규칙 활용만을 인정하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제3장 문법에 관한 것’의 ‘제4절 변칙 용언’ 아래에 “제10항 다음과 같은 용언은, 각각 그 특유한 변칙을 좇아서 어간과 어미가 변함을 인정하고, 그 변한대로 적는다.”는 규정 아래에 함께 기술하고 있다. 기술된 불규칙 활용은 ‘ㄹ, ㅅ, ㅎ, ㄷ, ㅂ, 여, 러, 르’이다.

## 2. 1980년판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

1980년판에서는 기술 체제가 달라져서 ‘불규칙 활용’을 ‘제3장 말본’의 ‘제2절 풀이씨의 끝바꿈’ 아래 제20항에서 ‘불규칙 활용’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20항 다음과 같은 풀이씨들은 각각 그 특유한, 벗어난 규칙을 좇아서, 줄기와 씨끝이 원칙에 벗어남을 인정하고, 그 벗어난 대로 적는다.”는 규정 아래에서 10개 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1958년판까지는 ‘ㄹ, ㅅ, ㅎ, ㄷ, ㅂ, 여, 러, 르’ 8가지의 불규칙 활용만을 인정했던 데에 비해, 4조에 ‘ㅡ, ㅓ’ 불규칙 활용을, 7조에 ‘거라, 너라’ 불규칙 활용을 추가하였다. 조목으로는 10개지만, 인정된 불규칙 활용은 모두 12가지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기술한 것은 이전의 ‘한글 맞춤법’과 같다.

### 3. 1988년 <한글 맞춤법>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

1988년 어문 규범의 하나로 공포된 <한글 맞춤법>은 그 체제와 내용이 이전의 ‘한글 맞춤법’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전까지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전체 체제를 크게 ‘총론’과 ‘각론’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론’ 아래에서 ‘자모’, ‘소리’, ‘문법’, ‘한자어’, ‘약어’,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의 7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988년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총론과 각론의 구분을 없애고, 1장 총칙, 2장 자모, 3장 소리에 관한 것, 4장 형태에 관한 것, 5장 띄어쓰기, 6장 그 밖의 것으로, 전체 6장으로 구성하였다.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은 ‘4장 형태에 관한 것’에서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 아래에 9개 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인정된 불규칙 활용은 ‘1. ㄹ 불규칙, 2. ㅅ 불규칙, 3. ㅎ 불규칙, 4. ㅡ, ㅍ 불규칙, 5. ㅊ 불규칙, 6. ㅂ 불규칙, 7. 여 불규칙, 8. ㄴ 불규칙, 9. ㄹ 불규칙’으로 9조목이지만 10가지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고 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이전의 ‘한글 맞춤법’과 마찬가지로다. 지금까지 살펴본 맞춤법 류에서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글 맞춤법이 개정과 불규칙 활용 기술 내용의 변화

1933	기술 내용은 같고, 용어만 바뀜	ㄹ, ㅅ, ㅎ, ㅊ, ㅂ, 여, ㄴ, ㄹ	8종
1937			
1948			
1958			
1980	한글학회 주관 개정판	ㄹ, ㅅ, ㅎ, ㅊ, ㅂ, 여, ㄴ, ㄹ, ㅡ, ㅍ, 거라, 너라	12종
1988	어문규범 <한글 맞춤법>	ㄹ, ㅅ, ㅎ, ㅡ, ㅍ, ㅊ, ㅂ, 여, ㄴ, ㄹ	10종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 내용은 불규칙 활용으로 인정하는 유형이 달라졌다. 1933년판~1958년판에서는 8가지만 인정

하던 것을, 1980년판에서는 12가지를 인정하였고, 1988년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거라, 너라’를 불규칙 활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모두 10가지의 불규칙 활용만을 인정한다.<sup>21)</sup>

## V. 한글 맞춤법과 학교 문법서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의 이동(異同)과 그 문제점

### 1. 시기별 고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일안(1933)은 국어 활용 체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최현배(1934)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에서 잘 드러나는데, 최현배(1934)의 내용은 최현배(1967)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이후 국어 활용 체계의 기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글 맞춤법’이라는 어문 규범이 표기법의 확립을 위한 것인 동시에, 국어 문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한국의 당대의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국어 문법 교육의 한 지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현배(1934)에서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은 통일안(1933)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3.1.에서 정리한 것처럼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 살핀 것과 ‘거라, 너라, 으’ 불규칙 활용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최현배 선생이 통일안(1933)의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현배 선생의 견해가 통일안(1933)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현배(1934)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안(1933)을 보완할 의도와 함께, “中等學校의 朝鮮語科 教授의 補用”을 위한다는 목적을

21) ‘거라, 너라’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가다, 자다, 오다’ 등이 명령형 한 가지에 국한된 현상으로 평서, 의문, 청유, 감탄형 일 때에는 규칙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라, 너라’를 불규칙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어문 규범’에 학자 개인의 견해를 전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학교 문법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것을 보인 예로, 통일안(1933) 이후의 학교 문법서와 ‘한글 맞춤법’의 상호 관계성을 보여주는 한 典範이 되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한 <표 1>을 통해서 통일안(1933) 이후의 학교 문법서에서의 불규칙 활용의 기술 양상을 보면, 결국 ‘한글 맞춤법’과 학교 문법서류의 기술 내용의 차이는 ‘거라, 너라, 一, 丁, ㄹ’ 불규칙 활용 인정 여부에서 나타난다. 이를 시기별로 4장의 ‘한글 맞춤법’에서의 불규칙 활용의 기술 내용의 변화와 대조하여 볼 필요가 있다.

통일안(1933)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현배(1934)에는 제시된 ‘거라, 너라’ 불규칙 활용은 3차 교육과정기 이후 7차 교육과정기의 문법 교과서류에서는 모두 불규칙 활용으로 인정하였다. ‘가-’와 ‘오-’에 결합하는 어휘적으로 조건 지어진 교체로 본 것이다. 이는 1985년의 국정 『고등학교 문법』에서도 불규칙 활용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88년의 <한글 맞춤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처리는 이후의 학교 문법서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2년판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거라’를 ‘자거라, 되거라, 보거라, 입거라’ 등에서와 같이 모든 동사 어간에 결합이 가능한 명령형 어미로, 즉 규칙 활용을 하는 어미로 다룬 것이다.

반면, ‘ㄹ’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과 학교 문법서류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거라, 너라’ 불규칙 활용과는 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통일안(1933) 이후 모두 불규칙 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학교 문법서에서는 최현배(1934)에서부터 3차 교육과정기까지는 불규칙 활용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생성음운론에 바탕을 둔 ‘ㄹ 탈락 규칙’설이 힘을 얻어 4차 교육과정기 이후에는 ‘ㄹ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갈다~가오~갑니다(耕, 磨)’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ㄹ 종성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의 탈락은 ‘현대 한국

어의 음운규칙'으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에서 'ㄹ 불규칙' 활용을 인정한 것은 통시적 변화의 결과로 불규칙한 활용 패러다임을 가지게 된 부류를 불규칙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학교 문법서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sup>22)</sup>

한편, 'ㄷ, ㅌ' 불규칙 활용의 경우는 그 인정 여부에 변화가 많은 예이다. 통일안(1933)에서는 둘 다 불규칙 활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현배(1934)에서는 '으' 불규칙 활용만 인정하였고, 이후 3차~5차 교육과정기에는 학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다가 1985년<sup>23)</sup> 이후의 학교 문법서에서는 어간말 'ㄷ, ㅌ'의 탈락을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1988년 <한글 맞춤법>에서는 둘 다 불규칙 활용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학교 문법서와 어문 규범의 괴리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다시 7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탈락 현상으로 보고, 둘 다 불규칙 활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학교 문법서에서는 'ㄹ' 불규칙 활용과 마찬가지로 생성음운론의 도입과 함께 불규칙으로 볼 수 없다는 특정 언어 이론에 바탕을 둔 해석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용언 어간 말음이 'ㄷ'로 실현되는 경우에 어미 '-아/어, -았/었' 앞에서 항상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1) ㄱ. ㄱ- + 어 → 그어

ㄴ. 그어 → \*거

ㄷ. ㅌ- + -어 → 꺼

ㄹ. 쓰- + -어 → 써

22)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만, '학교 문법서류'에서는 같은 유형의 교체를 보이는 용언류가 다수이므로 불규칙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고, <한글 맞춤법>에서는 활용 체계가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6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3) 1985년에 처음으로 국정 통일 교과서 『고등학교 문법』(대한교과서주식회사)이 만들어졌다.

‘긱다’는 ‘잇다, 짓다, 낫다’ 등과 함께 ‘ㅅ불규칙 용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sup>24)</sup>. 그런데 ‘ㅅ’ 받침이 중세국어의 ‘ㅅ’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어’의 문제가 남는다. ‘그어’라는 표면 음성형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 현대 한국어에는 ‘ㅡ’와 ‘ㄴ’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음소배열제약을 설정하기 어렵다. ㄷ, ㄹ의 예를 규칙적인 탈락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호(2014, pp. 225-232)에 의하면 음소배열제약에 의한 교체는 자동적 교체이고, 제약에 따르지 않는 교체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ㅡ’와 ‘ㄴ’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음소배열제약을 설정하기 어렵다면 현대 한국어의 ‘끄다, 쓰다’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ㅡ’ 탈락은 비자동적 교체이면서 불규칙한 교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미 ‘ㄴ’ 앞의 모든 ‘ㅡ’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과 ‘문법 교과서류’에서의 불규칙 활용의 처리 양상을 대조해 보면<sup>25)</sup>, 어문 규범으로서의 ‘한글 맞춤법’은, 통일안(1933)에서는 국어의 활용 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이후의 국어 문법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불규칙 활용의 범위를 넓혀 가는 추세를 보인다. 1988년의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 ‘거라, 너라’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설서에서 명령형에 있어서는 불규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불규칙 활용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법 교재류’의 경우는 통일안(1933)이 나오기 전에는 ‘활용’이라는 범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통일안(1933)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려 한다. 다만 ‘규칙’으로 언어현상

24) ㅅ받침을 가진 용언들 중에 ‘벗다, 씻다’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탈락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예들을 중세국어에서의 ‘ㅅ’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25) 한 심사자께서 학교문법은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기준으로 불규칙을 설정하고, 한글 맞춤법은 일반적인 형태 표기가 아닌 음소 표기의 허용을 기준으로 불규칙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양 체계의 불일치는 불가피한 것이고 덧붙여 주셨다.

을 설명하려는 생성음운론의 도입과 함께, ‘ㄷ’ 불규칙 활용 및 ‘一, ㅓ’ 불규칙 활용을 불규칙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ㄷ, 一, ㅓ’ 불규칙 활용에서 보이는 이상성(異常性)이 역사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sup>26)</sup>, ‘한글 맞춤법’에서의 처리가 더 온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양자의 기술상 차이와 보완 방향 모색의 필요성

‘한글 맞춤법’과 ‘학교 문법’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맞춤법’이란 ‘한국어 음성을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로 옮기는 데에 적용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그대로 문자 생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맞춤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그 내용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의 국어 교육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교 문법’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언어학적 지식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토대가 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 문법서의 기술 내용이 ‘맞춤법’의 내용과 달라지게 되는 경우,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들로서는 혼란을 겪기 쉽다. 앞에서 정리한 맞춤법과 학교 문법서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의 이동(異同)은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인 것이다.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맞춤법과 학교 문법서에서 기술 내용의 차이가 나타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예들에 대한 인식 혹은 해석이 다른 데에서 온 것이고(ㄷ, 거라 불규칙), 다른 하나는 언어의 변화로 말미암아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게 된 것들에 대한 기술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一, ㅓ 불규칙). 문제는 이렇게 어문 규범과 학교 문법에서 기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자칫하면 학습자들이 해당 현상

26) 현대 한국어에서 필수적 ‘一’ 탈락은 용언에서만 일어나고, ‘ㅓ’ 탈락은 용언, 그것도 순자음 아래의 ‘ㅓ’만 탈락(원순모음화의 영향)한다. 이러한 교체의 특수성은 통시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을 이해하는 데에 장애를 주거나, 어문 규범 혹은 학교 문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혹은 국어의 문법 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불신감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맞춤법과 학교 문법서에서의 불규칙 활용 기술의 이동(異同)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종합적 국어 지식 교육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다루기로 한다(6장 참조).

### 3. 한글 맞춤법 및 문법 교과서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이 절에서는 본고에서 비교 검토 대상이 된 ‘한글 맞춤법’과 ‘문법 교과서류’가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한글 맞춤법’이나 ‘문법 교과서류’에서 불규칙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아니다, 이다’의 굴절형 문제를 들 수 있다. ‘아니다, 이다’에 대해서는 한때 지정사라는 품사의 설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는데, ‘지정사’라는 품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이들이 일반 용언과는 활용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문제이다. 단적으로 일반 용언의 연결어미 ‘-아/어, -아서/어서’에 대응되는 형태로 ‘-라, -라서’를(배주채, 2001, p. 46), 선어말어미 ‘-도-’에 대응되는 형태로는 ‘이로다, 아니로다’ 갖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활용 체계상의 특수성은 ‘한글 맞춤법’이나 ‘문법 교과서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 이들 ‘아니다, 이다’의 굴절을 일반 용언과 같은 활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현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한국어 용언의 불규칙 활용과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이나 문법 관련 교과서류에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활용 체계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한다. 즉, ‘이어서/아니어서, 이라서/아니라서’가 모두 가능한 ‘이다, 아니다’를 왜 불규칙 활용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는지를 설명하거나 불규칙 활

27) 이 형태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지적해 주셨다.

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안(1933) 제정을 전후한 시대의 언어 현상과 오늘날의 언어 현상이 달라진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1988년의 <한글 맞춤법>에서 ‘제3장 형태에 관한 것’의 ‘제5절 준말’에서 제35항의 [붙임 2]의 규정이 문제이다. 제35항 [붙임 2]의 규정은 “‘니’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냐’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는 어간 말음이 ‘니’인 용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같은 원순전설모음인 ‘기’가 어간 말음인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아마도 1930년대에는 어간 말음이 ‘기’인 용언이 ‘-어, -었’과 어울려 쓰일 때에 모음의 축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니’의 발음이 이중모음([oy])이었다가 단모음([ö])이 되었고, 이것이 ‘니’와 결합되어 ‘내[we]’가 된 것인데, ‘기’([uy])가 ‘ü’가 된 것은 ‘니’와 같은 과정이지만 이것이 ‘[we]’가 아니라 ‘[wyə]’<sup>28)</sup>가 되었기 때문에 ‘니, 기’ 모음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용언의 활용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어간 말음이 ‘니, 기’인 용언의 활용을 불규칙 활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간 말음이 ‘기’인 용언이 ‘-어, -었’과 어울려 쓰일 때에 모음의 축약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통일안(1933) 제정의 시기와는 달리 오늘

28)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은 [wyə]는 음성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wyə]라는 연속체보다는 [ywa]라는 연속체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y]가 반모음이 아니라 구개음화된 자음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 표기법에서는 구개음화된 자음은 표기 수단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반모음 y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일부 방언에서 ‘말리다’의 사동형으로 ‘말류다(<-말리우다)’가 확인되는데, 이 용언이 어미 ‘-아/어’와 결합하면 그 모음 부분 역시 [wyə] 혹은 [ywa]으로 적게 된다. 즉 ‘말류다’에서의 ‘ㄹ’은 음성적으로 구개음화된 ㄹ인데, 한글 표기에서는 그것을 반모음으로 적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음절 구조상 모음 앞에서 두 활음이 동시에 오는 체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지영(2011, p. 178)에서와 같이 기저에는 존재하지 않고 표면에서만 존재하는 음성형으로, 음운의 지위를 얻지는 못하는, ‘표면 음성형’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날은 ‘바뀌--+어>바뀌어>’<sup>29</sup>바뀌’, ‘뛰--+어>뛰어>’<sup>29</sup>뛰’, 사귀--+어>사귀어>’<sup>29</sup>사귀’와 같은 발음의 교체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간 모음과 어미의 축약형인 ‘ㄱ’이 한글 맞춤법 제2장의 자모에 대한 규정에서 국어의 자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자모로 인정되지 않은 형태를 사용해도 좋은지가 문제이고, ‘기(wi)’와 ‘기(a)’의 축약형을 ‘ㄱ’로 적을 것인지, 아니면 ‘ㄱ’로 적을 것인지도 문제이다<sup>29</sup>). 구어로는 사용하고 있으면서 문어로 표기할 수 없는 것은, 일반 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및 학교 문법 교과서류가 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VI. ‘불규칙 활용’ 교육을 통한 국어 지식 교육의 가능성 모색

V 장에서의 논의는 ‘불규칙 활용’에 대해 ‘한글 맞춤법’과 <학교 문법서>의 서술 내용이 그 종류와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 혹은 국어 문법 체계에 대한 이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조금만 확대하면 양자의 차이가 국어 문법 체계의 비체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오해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용언의 활용 체계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범주를 학교 문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그것이 국어 지식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핌으

29) 한글 모음으로 ‘ㄱ’로 적든 ‘ㄱ’로 적든 음성기호([wi+a=wyə])는 같다. 훈민정음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한국어의 삼중모음 표기를 현대국어에서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어 음절구조 기술도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차치하기로 한다.

로써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핀다.

불규칙 활용 용언(강변화 동사)의 생성은 일반적으로 해당 언어의 통시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들이 많다. 국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앞에서 다루었던 12가지 유형의 불규칙 활용 모두에 대해 국어사 자료에서 통시적 변화를 통해 생성된 것이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의 자료만을 참조하더라도, 12가지 유형의 불규칙 활용 중에서 ‘ㅅ, ㅂ, ㅁ, ㅌ’ 불규칙 활용이 15세기 중반 이후에 일어난 음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간단히 ‘ㅅ’ 불규칙 활용의 생성과 관련된 음운 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ㅅ’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15세기에 모두 ‘ㅅ’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활용 패러다임을 보인다.

짓-(作)	긔-(劃)
짓+어 -> 지셔	긔+어 -> 그셔
짓+으니 -> 지스니	긔+으니 -> 그스니
짓+고 -> 짓고	긔+고 -> 긔고
짓+는 -> 짓는	긔+고 -> 긔는

15세기 중엽에 분명히 음소로 존재했던 ‘ㅅ’은 16세기 초부터 비음운화를 겪는다. 이른바 ‘ㅅ > ㅇ’라는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 어간과 어미의 통합형 ‘지셔, 지스니, 그셔, 그스니’의 ‘ㅅ’은 사라지고, ‘지어, 지으니, 그어, 그으니’가 된다. 그런데 ‘짓-, 긔-’의 활용형 중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 -는’과 결합한 형태 ‘짓고, 짓는, 긔고, 긔는’은 자음 앞의 어간 말음의 ‘ㅅ’이 ‘ㅅ’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에, ‘ㅅ > ㅇ’라는 음운변화를 겪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활용형은 ‘짓고, 짓는, 긔고, 긔는’이라는 형태 그대로 유지된다. 즉, 후기 중세국어의 ‘짓-, 긔-’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지어, 지으니, 짓고, 짓는’, ‘그어, 그으니, 긔고, 긔는’이라는 활용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패



러다임은 현대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ㅅ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이라 하는 것이다.

‘ㅅ’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이 원래부터 그러한 교체를 보인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일어난 ‘△ > Ø’라는 음운변화 때문에 생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국어의 역사(국어사)와 관련된 국어 지식의 중요한 예 중 하나이다. 불규칙 활용에 대해 가르치는 과정에서 국어의 역사적 변화 및 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단편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불규칙 활용’이라는 현대 국어의 문법 현상과 관련하여 첫째, 15세기에는 ‘△[z]’이 음소로 존재했다는 사실, 둘째, 이 ‘△’이 자음 앞에서는 ‘ㅅ’으로 발음되었다는 사실,<sup>30)</sup> 셋째, 15세기 이후에 ‘△’이 음소 목록에서 사라지는 음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sup>31)</sup>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ㄷ’ 불규칙 활용의 경우도, ‘△’의 소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끌다(引)’의 활용형 ‘(잘) 끄읍니다’는 후기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습-’의 ‘△’의 탈락과 무관하지 않고, 주체 존대의 선어말 어미 ‘-시-’와의 통합형은 원래 ‘끄시고’인데, 어간말 ‘ㄷ’ 탈락과 어미 ‘으’ 탈락의 경쟁적 적용에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형태론적 통일성 추구라는 화자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끌으시고’라는 형태가 자주 쓰이게 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즉 문법 교육은 단순히 공시적 문법 현상에 대한 지식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역사에 대한 포괄적 지식 교육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및 학교 문법 관련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여 종합적 지식으로서의 국어 지식 교육을 시행할 때 제대로 된 국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0) 이것을 『훈민정음』의 ‘八終聲可足用’ 규정에 대한 지식으로 확장하여 교육할 수도 있다.

31) 이는 正音 28字가 어떻게 해서 현대 국어의 24字母로 줄어들었는가 하는 지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

## VII. 결론

본고는 ‘한글 맞춤법’과 ‘학교 문법서’류에서의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의 변화를 ‘국어 문법 연구사’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한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 문법, 특히 용언의 활용 체계에 대한 교육이 ‘어문 규범’과 ‘국어 지식 교육’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불규칙 활용에 대한 ‘한글 맞춤법’ 규정의 내용 변화와 학교문법 교과서류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의 변화를 정리하고, 양자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폈고, 용언의 활용 체계 교육이라는 문법 교육이 국어 지식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통일안(1933) 이전의 학교 문법류에 나타난 국어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에서 ‘불규칙 활용’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정리하였다. 특히 학교 문법의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안확(1923)에 처음 ‘변격’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었음을 밝힌 것은 국어 문법 연구사에서 새로이 확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통일안(1933) 이후에 간행된 학교 문법서류의 용언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에서 ‘불규칙 활용’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정리하였다. 특히 3.1.에서는 최현배(1934)의 내용에서, 통일안(1933)의 규정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였고, 그렇게 내용의 차이가 생긴 까닭을 살폈다. 즉 학자 개인의 견해와 어문 규범으로서의 ‘한글 맞춤법’의 차이로 보았다. 3.2에서는 교육과정기 이후의 학교 문법 교과서류들에서의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통일안(1933) 및 그 이후의 ‘한글 맞춤법’의 내용 중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교육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하였는데, ‘한글 맞춤법’의 5차례 개정 과정에서 통일안(1933) 이후 8가지 불규칙만 인정되던 것이 1980년 개정본부터 12가지로 불규칙 활용의 교육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 맞

춤법'의 기술 내용과 학교 문법 교과서류 사이의 영향 관계를 살폈고(5.1.), 양자의 차이가 생긴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이 현장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보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을 논의한 후(5.2), <한글 맞춤법> 및 <학교 문법서>의 기술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5.3). 6장에서는 학교 문법 및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 두어야 할 어문 규정 중) 한글 맞춤법이라는 영역 안에서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교육이 단순히 공식적인 활용 체계의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 관한 지식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ㄸ' 불규칙 활용 용언 및 'ㄹ' 불규칙 용언의 생성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고영근(2000). 우리나라 학교문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10(2), 27-46. 국립국어원.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신문관.
- 김두봉(1922). 김더 조선말본. 상해 새글집.
- 김민수(1955). 대학국어 理論編의 國語 文法. 141-213. 永和出版社.
- 김민수(1979/2008). 고등학교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61), 4-103. 박이정.
-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1960/2008). 새중학문법. 새고교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 1(36), 1-303. 박이정.
- 김민수·이기문(1967/2008). 표준중학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49), 67-133. 박이정.
- 김민수·이기문(1968/2008). 표준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59), 184-280. 박이정.
- 김민수·하동호·고영근(편)(1986).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총색인. 탑출판사.
- 김완진·이병근(1979/2008). 고등학교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60), 5-105. 박이정.
- 남광우·유창돈·이흥백(1966/2008). 중학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46), 6-67. 박이정.
- 대한교과서주식회사(1988). 국어 어문 규정집.
- 문교부(1962). 중·고등학교 국어 문법 지도 지침. 문교부.
- 문덕수·김윤식(1967/2008). 중학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50), 71-135. 박이정.
- 배주채(2001). 지정사 활용의 형태음운론. 국어학 37, 33-59. 국어학회.
- 신명균(1933/2009). 조선어문법. 삼문사서점. 歷代韓國文法大系 1(23). 박이정.
-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 교양.
- 안확(1923/2008). 수정 조선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 1(9), 114-260. 박이정.
- 양주동·유목상(1966/2008). 새중등국어문법(1),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46), 70-132. 박이정.
- 윤여탁·구본관·정정순·김기훈·장성남·소정섭·신효은·최혜민·김정은·송소라(2013). 독서와 문법. ㈜미래엔.
- 이길록·이철수(1979/2008).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62), 6-130. 박이정.

- 이상신(2009). 학교 문법의 ‘축약’ 및 관련 어문 규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53, 417-139. 국어국문학회.
- 이승녕(1967/2008). 중학교국어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51), 5-68. 박이정.
- 이용주·구인환(1967/2009). 중학교국어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51), 71-136. 박이정.
- 이은정·한인석(1967/2008). 중학표준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52), 6-73. 박이정.
- 이을환(1968/2008). 최신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56), 97-188. 박이정.
- 이웅백·안병희(1979/2008).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64), 5-101. 박이정.
- 이진호(2014). 개정판 국어음운론강의. 삼정문화사.
- 이희승(1968/2008). 새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58), 5-93. 박이정.
- 정인승(1967/2008). 표준중학말본,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53), 72-135. 박이정.
- 조선어학회(1933). 한글맞춤법통일안.
- 최현배(1934/2008). 중등 조선말본, 歷代韓國文法大系 1(17), 7-90. 박이정.
- 최현배(1936/2008). 중등 교육 조선어법, 歷代韓國文法大系 Ⅱ(44), 83-186. 박이정.
- 최현배(1967/2008). 새로운 중학말본, 歷代韓國文法大系 Ⅱ(53), 2-68. 박이정.
- 최혜원(2004). 표준말음 실태 조사 3. 국립국어원.
- 한글학회(1982). 한글 맞춤법 통일안: 처음판 및 고침판 모음.
- 한글학회(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1980.
- 한영균(1995). ‘니. 귀’의 단모음화와 방언분화. 國語史와 借字表記, 817-846. 태학사.
- 허웅(1979/2008).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Ⅱ) 1(63), 6-98. 박이정.

이 논문은 2016년 12월 30일에 접수된 논문으로 2017년 2월 1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2017년 2월 15일에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됨

<Abstract>

## Compare the Descriptions on Irregular Conjugation Verbs in ‘Korean Orthography’(Han-geul Ma-tsum-beop) and in Textbooks on Korean Grammar

Yu, Kyung-min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descriptions on irregular conjugation verbs in ‘Korean Orthography’(Han-geul Ma-tsum-beop) and in textbooks on Korean grammar, with the intention of finding out the mutual influences afterwards. It also aims to appreciate the aims and functions of ‘school grammar’ in the Korean contexts.

In chapter 2, the author has inspected that before *the draft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spelling*(1933) have been made, how researchers described irregular conjugation verbs and inflections in Korean, and found that the first who mentioned about irregular conjugation verbs is An Hwak. In chapter 3, we examined how the irregular conjugation verbs have been treated in Korean Grammar books. In chapter 4, we summarized the changes in the descriptions on irregular conjugation verbs in the 5 revised versions of *the draft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spelling*. In chapter 5, the author mentioned two problematic phenomena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draft in 1988 version, but not included considered. In chapter 6,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grammar education in the school, especially the education on the irregular conjugation verbs, not only they reflect synchronic phenomena but also

they are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understand and usage of Korean Language.

<Key words> irregular conjugation verbs(불규칙 활용), grammar education(문법교육), school grammar(학교 문법), the draft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spelling(한글마춤법 통일안 1933), Korean Orthography(한글 맞춤법 1988), An Hwak(안학), Choi Hyun-Bae(최현배)

<부록> 문법 교재류에서 다룬 불규칙 활용의 양상

	문법 교재	ㄷ	ㄹ	ㄴ	ㅅ	ㅎ	으	우	여	러	거 라	너 라	르
		어간만 변하는 것							어미만 변하는 것				함께 변함
	심의린(1949)	○	○	○	○	○	○		○	○	○	○	○
	이승녕(1954)			○			○						○
1차	김민수(1955)	○	○	○	○	○			○	○			○
1차	이승녕(1956) 고등	○	○	○	○	○	○	○					
1차	이승녕(1956) 중등	○	○	○	○	○	○	○					
1차	최현배(1956)	○	○	○	○	○	○	○	○	○	○	○	○
1차	최현배(1957)	○	○	○	○	○	○	○	○	○	○	○	○
1차	이희승(1956)	불규칙 기술 없음											
1차	최태호(1956)	○	○	○	○	○			○ (하)				○
1차	김민수 외(1960)	○	○	○	○	○	○		○	○			○
1차	김민수(1960)	○	○	○	○	○			○	○			○
1차	이승녕(1960)	○	○	○	○	○	○	○					
2차	한국국어교육연구 회_중학(1964)	○	○	○	○	○	○	○	○	○	○	○	○
2차	한국국어교육연구 회_고등(1964)	○	○	○	○	○	○	○	○	○	○	○	○
2차	고창식 외(1964)	○	○	○	○	○	○	○	○	○	○	○	○
2차	남광우 외(1966)	○	○	○	○				○	○			○
2차	양주동 외(1966)	○	○	○	○	○			○	○			○
2차	김민수 외(1967)	○	○	○	○	○	○		○	○			○
2차	문덕수 외(1967)	○	○	○	○	○	○	○	○	○			○
2차	이승녕(1967)	○	○	○	○	○	○	○					○
2차	이용주·구인환 (1967)	○	○	○	○	○			○	○			○



2차	이은정·한인석 (1967)	○	○	○	○	○	○		○	○			
2차	이을환 외(1967)	○	○	○	○	○	○	○	○	○	○	○	○
2차	최현배(1967)	○	○	○						○			○
2차	정인승(1967)	○	○	○	○	○			○				○
2차	강복수·유창균 (1968)	○	○	○	○	○	○	○	○	○	○	○	○
2차	강윤희(1968)	○	○	○	○	○	○	○	○	○	○	○	○
2차	양주동·유복상 (1968)	○	○	○	○	○	○	○	○	○	○	○	○
2차	이명권·이길록 (1968)_동사만	○	○	○	○		○	○	○	○	○	○	○
2차	이승녕(1968)	○	○	○	○	○	○	○	○	○	○	○	○
2차	이을환(1968)	○	○	○	○	○	○	○	○	○	○	○	
2차	이은정(1968)	○	○	○	○	○	○	○	○	○	○	○	○
2차	이인모(1968)	○	○	○	○	○	○	○	○	○	○	○	○
2차	이희승(1968)	○	○	○	○	○	○		○	○			○
2차	정인승(1968)	○	○	○	○	○	○	○	○	○	○	○	○
2차	최현배(1968) _동사만	○	○	○	○		○	○	○	○	○	○	○
2차	허용(1968)	○	○	○	○	○	○	○	○	○	○	○	○
2차	김민수·이기문 (1968)	○	○	○	○	○	○		○	○			○
3차	김완진·이병근 (1979)	○	○	○	○	○			○	○			○
3차	김민수(1979)	○	○	○	○	○	○		○	○			○
3차	이길록·이철수 (1979)	○	○	○	○	○	○	○	○	○	○	○	○
3차	허용(1979)	○	○	○	○	○	○	○	○	○	○	○	○
3차	이응백·안병희 (1979)	○	○	○	○	○	○	○	○	○			○
4차	강신항 외	○	○	○	○	○	○		○	○	○	○	○
4차	심의본(1985)_주다 /견네다/요청하다/	○	○	○	○	○	○		○		○	○	○

	다오를 어간 바뀔 불규칙으로												
4차	고등학교 문법(1985)지도서 포함	O	O	O	O	O	O	O	O	O	O	O	O
5차	고등학교 문법(1987)지도서 포함	O	탈 락	O	O	O		O	O	O	O	O	O
6차	고등학교 문법(1996)	O		O	O	O			O	O	O	O	O
7차													
개정	2007~												
	2013	O		O		O			O	O			O